

# '푸드트럭' 자리 옮겨가며 영업 가능

### 국무회의 관련 개정령안 의결...지자체 설정 '존' 안에서만

#### 버스 돌출번호판 광고 표시 허용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처리

앞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정된 여러 지역에서 시범이 많은 곳으로 트럭을 이동시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특정 장소 한 곳에서만 1~5년 동안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장소 이용료는 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또한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하단 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버스의 옆면 또는 뒷면에 단 광고 표시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돌출번호판에도 광고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은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타임스퀘어처럼 광고물 자체가 관광 요소가 되는 지역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표시구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30m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으로 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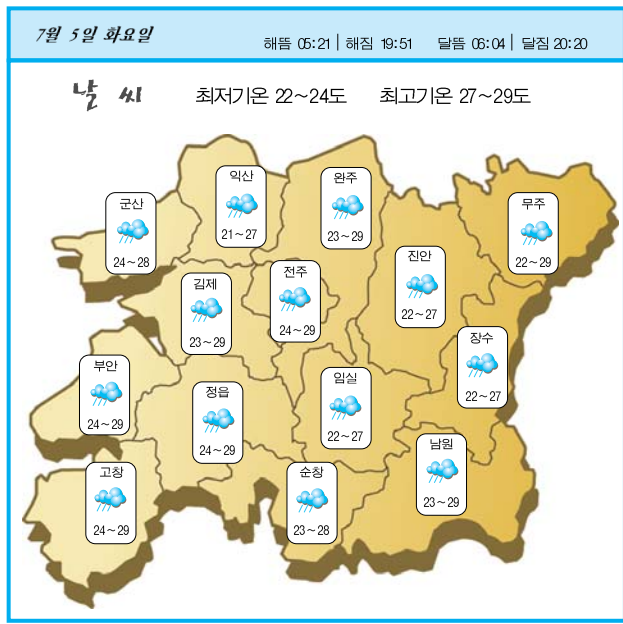
아울러 정부는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석유 제품 거래에 대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환급 기한을 2016년 6월30일에서 2017년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영수기자



## 전북대 아세안 이공계 대학생 초청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라오스·말레이시아 등 24명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 전공 강의·실험실습 참여

전북대학교가 아시아 주요 국가 이공계 대학생들을 초청 실험 실습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인 '2016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기관'에 선정, 아세안 이공계 대학생들을 초청해 다양한 실험실습과 한국문화, 역사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에 전북대는 이날 진수당 바오로 홀에서 프로그램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내달 12일까지 일정을 갖는다.

올해에는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온 이공계 학부생 2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6주 동안 전북대에서 생활하며 전자공학부에서 정보통신공학 전공 강의 및 실험실습 활동을 진행하고 전공 관련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도 배움의 시간을 이어나간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인 '2016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기관'에 선정, 아세안 이공계 대학생들을 초청해 다양한 실험실습과 한국문화, 역사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대는 이날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프로그램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내달 12일까지 일정을 갖는다.

제학부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 연구, "전북대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기억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화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라며 프로그램을 임하고 한국에 대한 좋

/고민형기자

## 도교육청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교사 연수

### 주요대학 수시 지원 전략·수시 상담프로그램 활용법 등 교육

전북도교육청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학교 현장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8일 군산 베스트 웨스턴호텔에서 도내 일반고 진학부장 등 18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갖는다.

박정선 연세대 입학사정관 실장이 '학생부 연계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특강을 하고 김상훈 전북대입 지도자단 강사가 학생의 경쟁력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수시 상담사례 분석을 발표한다.

이번 연수에선 ▲도내 주요대학 수시 지원 전략 ▲수도권 대학 지원전략 ▲수시 상담을 위한 대입 상담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또 11일에는 도내 일반고 교장 등을 대상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이해 연수를 진행한다.

김경훈 한남대 입학사정관회장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단위 학교

운영 방향'을 주석훈 서울 미림여고 교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 교육과정·교실수업·창체활동'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18일, 19일 각각 일반고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시 진학상담 역량 강화 연수가 준비돼 있다. 올해 수시 전형 변경사항에 따른 지원전략과 상담 학생의 조건에 따른 상담 진행사례를 교육한다.

21일에는 모의면접캠프 대비 교사 대상 특강을 진행하고 28일에는 우림중학교에서 제5회 수시 모의면접 캠프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13일은 대입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와 28일엔 전북지역 전문대학 입시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며 30일에는 고 1,2,3학년부장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자유학기제 맘에 쏙 학부모 토크 콘서트'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6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학부모 3백여 명과 함께 하는 자유학기제 맘에 쏙 학부모 토크 콘서트가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부모 토크 콘서트는 ▲왜 자유학기제인가,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 찾기, ▲자유학기제

걱정, 끝을 주제로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영 교육부 차관,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소장, 정인덕 남원운봉중 교사, 정창웅 김제 금곡중 교사, 박수옥 영영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은 더불어 가는 학부모교육을 꿈꿉니다.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한 동행, 전북의 학부모 여러분이 함께 걸어 주세요.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